

재활보조기구 지급 효율화 방안 :

인천병원 의지 · 보조기 제작실 운영(시범) 지원 방안

<'20. 7. 4. 재활공학연구소>

① 검토배경

- 의료현장에서 절단재활 서비스의 병원 내 프로세스 통합 필요 제기
 - 절단재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천병원 의지 보조기 진료 특화 전문화를 위한 병원 내 보조기 지급기능 미흡
 - 아급성기 (집중재활치료시기)와 유지기 보조기구 및 직무복귀를 위한 신속대응반 맞춤형 보조기구 지급의 효율화 및 협력방안

② 보조기 지급 개선 방안 (인천병원 시범 운영)

- ① 인천병원 제작실 운영을 위한 제작기사 파견지원
 - 인천병원 6급 공무원 제작기사 3인 충원 후 연구소 교대 근무 실시
 - ※ 신규 충원 시 업무의 숙련도 및 효율성의 저하를 고려하여 연구소 숙련 제작기사 1~2명을 인천병원 파견으로 업무 협조하고, 신규 공무원 제작기사 1~2명 연구소 제작실에서 교육 및 숙련 진행

<제작기사 재배치 계획(안)>

구분	합계	연구소(본원)	병원						
			인천	안산	대구	동해	창원	순천	대전
현인원	21명	10명 (휴직 1명 / 전환 전문직 1명 / 제작기사 공무원 2명 포함)	1 (공무직)	1	1	1	3	2	2
재배치 계획(안)		- 6	+3	+1	+1	+1			
재배치 인원	21명	4명 (전환전문직 1명 제외시 3명)	4명	2명	2명	2명	3명	2명	2명

※ 휠체어실(재활공학기사 공무원) 1명 제외 21명/연구소 필수 인력5명 필요

- 제작기사 22명 중 연구·시제품 제작 등 필요인력(5명)을 제외한 의지보조기 제작인력(17명)을 소속 병원으로 배치 (재활공학기사 1명을 제외 21명)
- 연구소 필수인원 5명 및 권역별 서비스 센터 3명 추가인력 재배치 시, 본원인력 10명 중 (연구소 본원5, 안산1, 대구1, 동해1)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으로 인천병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은 1명(전환 전문직포함 최대 2명)임

<연구소 본원 제작실 업무 인력현황>

구 분	직무지원 신속대응반	실리콘 의수실	의지 제작팀	의수 제작팀	보조기 제작팀	의지보조기 제작 및 행정업무	제작 실장
현인원10명 (전환 전문직 1명 / 휴직 1명 / 공무직 2명 포함)	1명 (전환 전문직)	1명	2명	2명	1명 (휴직)	2명 (공무직)	1명

※ 휠체어실(재활공학기사 공무직) 1명 제외

② 인천 병원 절단재활서비스 및 보조기 지급 미흡

- 직무지원 사업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 센터 확대 운영으로 인한 연구소 본원 인력 재배치로 인한 인원 감소가 주요 원인 (권역별 서비스센터 및 실리콘 의수실 인력 확충 없이 개소 시설 장비 미흡) 인천병원 자체 제작실 공간 및 장비 구축 지원
- 인천병원 자체 제작실 설비 구축 때까지 연구소 제작실 장비 및 시설 공동 사용 지원
- 인천병원 제작실에서 환자 상담, 취형 및 간단 수리 작업 지원, 연구소 셔틀 순환 이용을 통한 환자 이동 및 제작업무 지원
- 초기 소요 소모품 의지 재료 제공 및 병원 구매 소요 의지 시착 제품의 관리 및 데모 등 업무 지원

- ③ 아급성기/신속대응 환자의 임시소켓 (반복제작) 또는 비수가 부품의 수가화 방안 검토 협력 및 업무개선 협조 지원
- 재활보조기구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활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련된 의지 보조기 제작 기사 및 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아급성기 환자와 유지기 환자와의 차별화된 수가(시스템)적용이 필요
 - 현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서비스 제도는 유지기 환자의 재활보조기구 공급에 관한 수가 제도만 있는 상황이며 또한 지급하는 보장구 건수 증가 및 의지재료비 단가 상승으로 재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지급 보조기구 중 재료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부품가격이 산재 수가보다 높은 실정으로 질적 서비스의 어려움
 - 인천병원 아급성기 환자의 절단재활에 필요한 임시소켓 및 입원 훈련 기간 동안의 재활보조기구 제작은 단단부 변화로 인한 추가제작 및 재제작, 소켓수정, 정렬조절, 기타 서비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
 - 제도적 장치(아급성기 및 집중재활치료에 필요한 수가 등)가 없는 상황에서의 병원내 보조기구 서비스 지급 만족은 불가능한 상황

③ 기대효과

- 인천병원 제작실 시범운영을 통한 아급성기 환자 및 집중재활프로그램 병원 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보조기 지급 체계 구축(보조기처방-제작-검수)으로 절단재활서비스 질적 향상 및 행정 절차 효율화 도모
- 인천병원 제작실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소속병원 권역별 제작실 적용을 위한 특화 방안 도출 가능성 제고

5 향후 계획

- 「보조기 지급 효율화 방안」 내부 논의 계속(병원운영부, 소속병원, 재활공학연구소)
- 연구소 병원 제작실 운영 지원에 따른 연구소 예산 지원 방안 검토
- 병원 내 재활보조기구 지원 프로세스 마련(소속병원)
- 제작기사 부족 인력 증원 반영 요청(병원운영부)
- 시범운영 성과 따라 소속병원 제작실 운영 방안 재검토 및 연구소의 보조기 제작 및 지급을 소속병원지역서비스센터(인천·안산·창원·대구·순천·대전·동해)으로 이관 검토